기술과 이미지:

엘뤼(Jacques Ellul)의 이미지 비판 연구

하상복*

【요약】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놀라운 발전의 한 지점에서 우리는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스펙터클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낙관론이 이야기하듯 개방성과 수평성을 실현하면서 새로운 문명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비판적 기술사상가인 엘뤼(Jacques Ellul)의 사유를 통해 우리는 기술과 이미지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엘뤼에게서 이미지는 기술사회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이자, 초월과 상징이라는 인간의 존재론적 지평을 무력화하는 힘으로 등장한다.

【주제어】 기술, 이미지, 엘뤼, 초월, 상징

*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 이 연구는 2013년도 목포대학교 교내연구비(학술연구조성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을 밝혀둔다.

I. 들어가며

캐나다의 미디어학자 맥클루언(Marshall McLuhan)은 『미디어의 이해 Understanding Media』에서 전자매체의 출현이 이끌 새로운 문화적 미래를 예측했다.

전기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를 인류 전체의 일에 개입시키고, 우리 속에서 인류 전체의 일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중추신경 체계를 기술적으로 확장시킨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깊숙이, 이제 더 이상 고립되고 타인과 분리된 것 같던 서구 문자 문명인의 역할이 받아들여 질 수 없다.¹⁾

맥클루언은 전자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상호 연관되고 개입하는 양상을 ‘지구촌’으로 명명했으며,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인간들은 “전체성, 공감능력, 그리고 깊이 있는 인식에 대한 열망”을 경험할 수 있고, “독특함과 다양성”²⁾을 실현할 것으로 예견했다. 것처럼 고립과 분리로 특징지어지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와 소통의 세계, 고유성과 차이가 인정되면서 동시에 인간간의 정서적 유대가 구축되는 세계를 창출하는 동력의 미디어는 텔레비전이라고 맥클루언은 말했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의 그러한 잠재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맥클루언은 텔레비전의 기술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맥클루언에 따르면 텔레비전은 ‘촉각적인 미디어’다.³⁾ 그것은 사실상 기존의 미디어들이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능력이다. 텔레비전의 촉각성은 시각과 청각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1) M. 맥클루언, 김상호 옮김, 『미디어의 이해』(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7.

2) 맥클루언, 『미디어의 이해』, 10, 532.

3) 맥클루언, 『미디어의 이해』, 528.

것인데, 시각과 청각의 복합 감각으로 구축된 영상은 그것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객관적 현실감, 즉 리얼리티를 제공한다. 우리가 신문이나 라디오 등, 단일 감각에 의존하는 미디어의 정보를 접할 때 보다 텔레비전 영상에서 훨씬 더 강렬한 현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 점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 서로 만나게 하며, 영상적 리얼리티에 의해 그와 같은 만남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인 것으로 인지된다. 그리하며 텔레비전은 사람들이 공간적 차이를 넘어 만나게 하고, 물리적 공간 속에서 만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하게 한다.

텔레비전이 주조하는 ‘이미지’는 그 점에서 대단히 독특하고 예외적이다. 매체학 이론가 드브레(Regis Debray)가 새로운 이미지 시대의 출현과 관련해 주장하고 있는 것 또한 텔레비전 이미지의 독특성 맥락에서다.

새로운 이미지 세계로 들어선 것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 결국 우리들의 70년대에 와서, 즉 컬러텔레비전의 사용과 함께였다. 우리는 1968년 무렵부터 비디오텍스(영상체제)를 출범시켰다. 바로 이 해에 프랑스에서 그로노블 동계올림픽 계엄을 천연색 화상으로 중계 방송했다.⁴⁾

텔레비전 이미지에 컬러라는 색채성이 결합했다는 것은 영상 이미지의 리얼리티가 한 단계 더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이미지의 새로운 장을 연 기술로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서양의 철학적 전통에서 이미지, 특히 시각 이미지는 실재하는 것의 모상이나 재현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 점에서 리얼리티와는 거리가 먼 존재였다. 주지하는 것처럼, 플라톤은 이미지를 실재의 인식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허구로 평가했다. 이상국가 건설과 관련한 시인추방론은 그와 같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텔레비전이라는 기술적 새로움에 힘입어 이미지는 전혀 새로운

4) R. 드브레, 정진국 옮김, 『이미지의 삶과 죽음』(글항아리, 2011), 420.

차원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영상 이미지는 어떤 것의 모상이거나 재현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재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그 자체로 고유한 현실이자 실재라는 인식을 부여받기 시작했다. 이미지의 그와 같은 존재론적 색깔은 텔레비전에서 출발해 가속화된 기술적 진보 속에서 한층 더 강력한 무게로 구축되고 있다.

진중권은 『이미지 인문학』에서 디지털 기술의 확장으로 인해 이미지와 실재의 구분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이슈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디지털 가상”은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하게 섞여 있는 혹은 “중첩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디지털 사진은 사진이 아니라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매체다”⁵⁾라는 주장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진은 물질적 대상물의 시각적 재현이며, 그 점에서 사진은 실재하는 현실의 모사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물리적 대상물에 의존하지 않는 사진들이 존재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사진들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개념에 입각해 전혀 다른 하나의 사진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그 때 그 사진은 현실적 지시체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 점에서 우리는 그 사진을 허구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허구란 실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을 필두로 디지털 미디어들은 이미지의 운동과 관련해 명백히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다. 이미지는 보다 더 다양화되었고 허구라는 전통적 평가를 벗어던졌으며 현실세계와 대비되어 자신의 자율적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전혀 없는 이미지 존재론과 운동론 속에서 개방성, 수평성, 혹은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의 등장을 이야기한다.⁶⁾ 우리는 앞서 고립과 단절로부터 관계와 소통의 세계로의 전환이라는 맥클루언의 희망적 예측을 보았다. 『디지털이다 Being Digital』의 저자 네그로폰테는 디지털

5)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천년의상상, 2014), 10-14.

6) 백옥인,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문학과 지성사, 1998), 15-23.

시대의 희망을 보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개념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미지의 자율적 존재성의 획득은 시공간적 제약에서는 불가능한, 다양한 사회적 실험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그러한 이미지 실험들이 사회적 변동의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⁷⁾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예측들에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는 기술과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관점을 전해주고 있는 프랑스의 기술철학자 엘뤼(Jacques Ellul)의 사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대기술과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그의 관점은 대단히 독특하다. 그는 현대 기술세계와 이미지의 존재 그리고 운동을 기독교적 세계 원리 속에서 풀어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사유의 틀을 보편의 영역으로 밀고 가고자 한다. 즉, 그의 사유는 초월과 상징 등 인간 삶의 인류학적 보편성 문제로 접근하고 있고 그러한 궤도 속에서 기술과 이미지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엘뤼의 기술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미지 비판의 단초는 기술에 대한 인식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⁸⁾

II. 현대기술의 탄생: 도구적 차원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기술은 기계장치와 같은 특정한 물질적 차원 속에서 자신의

7)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 135-149.

8) 엘뤼의 비판적 기술사상은 몇몇 연구자들이 다룬 바 있는데, 국내 연구로는 하상복(1994, 2004), 양명수(1995), 손화철(2007)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기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미지의 차원에서 엘뤼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엘뤼가 『무의미의 제국』과 『굴욕당한 말』을 통해 현대 기술사회에서 이미지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본격적으로 성찰했다는 사실에 입각할 때 그의 사유를 이미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모습을 드러낸다. 그 점에서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개별성과 특수성 속에 고착될 경향이 크다. 하지만 엘룰은 기술을 하나의 원리, 정신성, 이념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는 기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내가 사용하는 기술은 기계나 테크놀로지 또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리저리한 절차를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사회에서 기술이란 인간의 모든 행위영역에서(특정 발전단계 속에서) 절대적 효율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도달한 방법들의 총화다.⁹⁾

효율성과 합리성을 근간적 원리로 갖는 기술은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작업장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이란 그 두 원리가 응용될 수 있는 사회적 영역이라면 가리지 않고 침투하는 힘이라고 엘룰은 보고 있다. 기술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물질적 양상으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개별적 인식에 머무르곤 한다. 하나의 예로서, 앞에서 언급한, 미디어에 대한 맥클루언의 인식을 들 수 있다. 맥클루언은 다양한 미디어들을 개별적 존재성과 양상 면에서 구분하면서 그 사회적 효과들을 관찰하고 예측하고 있다. 그의 범주에 따라 미디어는 뜨거운 미디어(hot media)와 차가운 미디어(cool media)로 나뉘고, 각각은 서로 상이한 사회적 임팩트를 산출한다. 엘룰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분절적 기술 인식은 총체성으로 존재하는 기술의 특성을, 궁극적으로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기술의 인식과 관련해 엘룰은 두 기술 개념, 즉 전통적 기술과 현대적 기술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술은 인간이 자신의 물리적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연을 가공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탄생했다. 그 점에서 기술의 역사는 인류학적 기원을 갖지만, 그 기술들이 인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원리로 전환해내고자 하는 양상은 그리 오래되

9) Ellul, *The Technological Society*(New York: Alfred A. Knopf, 1964), xxv.

지 않았다는 점에 엘뤼는 주목하고 있다. 그가 구분하고 있는 전통기술과 현대기술의 본질적 차이는 기술의 원리로서 합리성과 효율성이 경제와 같은 일부 특정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 영역에 관철되는가에 있다. 그 점에서 엘뤼의 주요 관심은 현대기술의 존재론을 향하고 있다.¹⁰⁾

현대기술의 독특한 존재론을 설명하기 위해 엘뤼는 몇 가지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술현상’(technical phenomenon)이다. 앞의 설명에서 본 것처럼, 인간이 자연 환경을 자신의 삶에 적합한 조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탄생했지만, 그 기술적 행위가 반드시 효율성과 합리성의 원리로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산출할 최적의 경로를 찾는 일은 사실상 근대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엘뤼는 앞의 기술행위를 ‘기술운영’(technical operation)으로, 효율성과 합리성의 의식으로 이루어진 기술행위를 기술현상으로 정의했다.¹¹⁾ 달리 말하면, 기술현상은 기술행위가 배버가 말하고 있는 ‘목적합리성’ 위에서 실천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 근대의 태동과 맞물려 있는 기술현상은 주목할 만한 하위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한다. 본래 인간의 물리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탄생한 기술은 내적이고 자율적인 성장의 원리와, 기술적 요소들의 밀접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이 엘뤼의 진단이다.¹²⁾

다음으로 엘뤼는 ‘환경, 윤리, 신화로서의 기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현상이 기술 원리의 사회적 보편화와 확산의 내적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술이 환경이고 윤리이고 신화라는 등식은 기술의 보편화와 확산의 외적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인간의 삶은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10) 하상복, 『자크 엘뤼(Jacques Ellul)의 현대기술정치비판에 관한 일 연구』(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15.

11) Ellul(1964), 19-20.

12) Ellul, Ibid., 79-116.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왔고 기술적 환경은 그 둘 사이의 어느 지점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기술의 사회적 응용이 확산되면서 이제 기술적 환경은 점차적으로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압도하는 지배적 환경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엘뤼에게서 도시화는 기술적 환경이 지배적으로 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과정이다. 도시의 삶은 근본적으로 기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도시의 교통 네트워크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도시의 문화는 미디어에 토대를 두는 기술미학으로 채워져 있다. 도시인들의 사적 삶 또한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등과 같은 기술적 양상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어서 윤리로서의 기술은 기술적 원리가 인간 행위의 궁극적 근거와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기술은 하나의 사실이거나 방법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약속을 드러내며 행동의 근거가 되고 참여를 요구한다”¹³⁾라고 엘뤼는 말하고 있다. 환경이 되고 있고, 윤리가 되고 있는 기술적 양상의 또 다른 지점에서 기술은 신화가 되고 있다. 어떤 것이 신화로 불린다는 것은 그것의 객관적인 근거와는 무관하게 절대적 신성성과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엘뤼는 기술이 현대의 신화로 자리 잡았다고 말한다. 그 말은 곧, 기술성장과 혁신은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선이라는 믿음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을 뜻한다.¹⁴⁾

현대기술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엘뤼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은 “기술체계”(technical system)다. 이 개념을 통해 엘뤼이 주장하려는 것은 기술이 내적 연결 관계 속에서 하나의 총체적 실체로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체계란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기능적 분화와 전문화를 바탕으로 전체의 운동 원리에 상호 접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체계로서의 기술은

13) Ellul, 양명수 역, 1990, 『원함과 행함: 그리스도교 윤리 입문』(전망사, 1990), 155.

14) Ellul, *The New Demons*(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5), 105-107.

하위 요소들의 유기적인 기능성과 결합으로 존재한다.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기술의 체계적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¹⁵⁾

지금까지의 논의가 말해주듯이, 엘뤼에게서 현대기술은 대단히 독특한 존재양식과 운동양식을 보이고 있다. 기술은 내적인 발전의 원리로 구축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확산되어가면서 환경과 윤리와 신화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은 각 구성요소들의 밀접한 연관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체계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은 그러한 내적 메커니즘으로만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엘뤼는 현대기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선전’(propaganda)을 들고 있다. 선전은 기술의 존재, 운동, 효과 등 기술의 모든 양상과 측면들을 정당화하는 일련의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선전은 대단히 세밀한 사회학적·심리학적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¹⁶⁾, 이 지점에서 엘뤼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한 수단의 하나는 이데올로기이다. 그가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관념들의 복합체다. 그리고 그 관념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적 대상에 가치와 믿음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나아가 그 대상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심리적 조건의 형성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엘뤼는 “선전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환경이 필요하다”¹⁷⁾라고 말했다. 엘뤼의 비판적 기술사유 속에서 이미지는 기술적 형식과 내용을 매개로 기술에 대한 가치와 믿음의 심리를 창출하는 사회적·심리적 동인이다. 말하자면 이미지는 기술 원리의 중심에 놓인 선전의 도구라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이미지의 기술적 생산과 유포는 기술의 원리가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15) Ellul, *The Technological System*(New York: Continuum, 1980), 98-102.

16) Ellul, *Propagandes*(Paris: Economica, 1990), 15.

17) Ellul, *Ibid.*, 134-135.

III. 기술사회와 이미지

엘뤼의 철학적 사유에서 이미지는 말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그 점에서 이미지는 청각성을 본질로 하는 말과 달리 시각성 위에 성립한다. 엘뤼에 따르면 이미지와 말은 사람들이 진리를 인식하는 데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엘뤼에게서 시각 이미지는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만나고 그 세계를 정돈하며 체계화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나는 계속 이미지들을 주어 담는다. 이미지들이 겹침으로써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사는 실제 세상이 내게 주어진다. 나는 현실의 이미지들을 결합하고 현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며 시선으로 현실 속에 나를 통합한다. 나는 어떤 지점이 되는데, 이 지점으로부터 세계와 공간이 정돈된다.¹⁸⁾

시각은 외부 대상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 대상들을 이미지로 전환하면서 대상에 대한 정보를 내 속으로 끌어들이고 정돈한다. 그럼으로써 나는 바깥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비로소 ‘나’의 주관적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대상은 나의 관점에 종속된다. 궁극적으로 시각 이미지는 내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과정을 추동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엘뤼는 “나의 시선을 통해 내가 불가피하게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가”¹⁹⁾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엘뤼가 이해하고 있는 시각이 르네상스기 예술 원리로 발명된 원근법(perspectives)에서 태동한 근대적 시각원리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원근법의 혁명성은 주체가 대상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시각체계가 탄생했다는 사실에 있다. 아직 규정되지 않은 일정한 물리적 공간에 시각적 주체가 자신의 미학적 판단으로 소설적

18) Ellul, 박동열·이상민 옮김, 『굴욕당한 말』(대장간, 2004), 43.

19) Ellul, 위의 책, 43.

을 지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회화 기법인 원근법을 통해 주체는 대상을 바라보고 재현할 수 있는 확고한 시공간적 좌표를 확보하게 된다. 그것은 대상을 자신의 미적 의지대로 이끌어가고 통제하는 힘으로서 주체의 관점을 정당화한다. 여기서 우리는 원근법의 주체가 “기학학적 비례와 같은 합리성의 원리”로 대상을 재현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²⁰⁾ 대상물들은 공간적 배치에 관한 주체의 합리적 사유방식을 따라 캔버스 속에 시각적으로 재현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대상에 대한 주체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모호하지 않다”²¹⁾는 엘뤼의 입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성립한다.

앞서 우리는 엘뤼이 정의하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합리성을 본질로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엘뤼는 시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각 없이는 어떠한 기술도 가능하지 않다. 시각이 기술적인 작용을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인간의 시각은 기술을 관여시킨다”는 스펅글러(Spengler)의 말이 타당한 것은 아마도 여기에 있다. [...] 모든 기술은 시각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각화를 전제로 한다. 시각적인 것으로 된 현상이 변형될 수 없다면 이 현상은 어떤 기술의 대상일 수 없다.²²⁾

이처럼 엘뤼에게서 시각과 기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위의 인용이 말해주는 것처럼, 기술의 논리는 시각의 논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엘뤼가 볼 때 시각은 본질적으로 합리성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이 때 말하는 합리성은 모호함을 배제하고 명증성을 확보하는 정신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합리성은 모든 것을 논리와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며 대상들의 체계화를 지향한다.

이미지와 관련해 우리는 그것을 시각적 이미지로 국한할 필요는 없을

20)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한나래, 2003), 24.

21) Ellul, 『굴욕당한 말』, 47.

22) Ellul, 위의 책, 53.

듯하다. 하지만 엘뤼는 이미지의 본질을 시각에서 찾는다. 그 점에서 이미지를 말한다면, 이미지는 합리적인 세계 구성을 향한 의지의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각 이미지에 합리성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데, 말하자면 합리성이 투여된 이미지라는 인식 속에서 그 이미지는 명백함, 의심 없음, 진실함의 가치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인식의 필연적인 반작용으로, 이미지화되지 못한 대상과 세계는 합리적인 인식과 재구성을 기다리는 무규정적 대상이라는 인식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호한 이미지란 존재할 수 없다. 합리적으로 구축된 이미지는 그 이미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실에 대한 표상은 현실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또 이미지가 현실보다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표상은 현실로 간주되고 현실과 동일시된다.”²³⁾ 이미지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시각적 표상 너머로, 즉 상징적 차원으로 인간의 인식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달리 말하자면 그 표상에 고착되는 것을 강제한다. 그 점에서 이미지는 어떠한 성찰과 비판의 가능성도 열어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이끌어 나온다.

시각 이미지의 지배와 관련해 엘뤼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청각교육”, “대형 광고판”, “박물관과 전시회”, “영화”, “텔레비전”, “신문, 잡지, 만화”, “사진”²⁴⁾ 등으로 둘러싸인 도시환경이야말로 시각 이미지의 지배가 실천되는 공간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엘뤼에게서 도시는 단순히 농촌과 대비되는 사회공간이 아니라 이미지와 기술의 원리가 관철되는 장소다.²⁵⁾ “도시의 확장은 곧 기술의 확장을 의미”하는데, “도시는 구조, 과정, 생산 등 모든 것이 기술적인 것들로 구성된 곳이기 때문이다.”²⁶⁾

23) Ellul, 위의 책, 223.

24) Ellul, 위의 책, 223.

25) Ellul, *The Meaning of the City* (Michigan: Williams B. Eerdams Publishing Company, 1970).

26) 하상복, 『자크 엘뤼(Jacques Ellul)의 현대기술·정치·비판에 관한 일 연구』, 24.

그와 같은 논리 위에서 “도시 환경은 시각적인 세상이고, 시각은 도시환경에서 자체의 만족을 발견한다고 말할 수 있다.”²⁷⁾

『시각과 현대성』을 통해 서구사회의 시각체계의 변동을 다루고 있는 주은우의 연구는 도시, 기술, 이미지가 어떻게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주은우에 따르면 원근법의 발명으로 구축된 근대적 시각체계의 원리는 19세기부터 동요하기 시작했는데, 그 변동의 주요한 동인은 산업화와 도시화였다. 서로 밀접히 연관된 두 동인은 “새로운 시각 테크놀로지의 발명과 확산”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원근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체계가 형성되었다.²⁸⁾ 주은우의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모더니즘(modernism)과 시각성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과 기계화된 산업화”는 원근법이 만들어내는 고정된 시공간 감각에 균열을 가져온다. 전 자본주의적 생산, 즉 농업 생산에서는 토지가 결정적인 생산수단이었고, 노동력은 특정한 시공간적 지점 위에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삶 전체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은 고정된 토지가 아니라 이동하는 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노동력을 이동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삶의 방식을 창출해냈다. 도시는 그와 같은 새로운 생산체계를 표상하는 공간으로 등장했다. 그와 같은 물리적 조건 속에서 사람들의 시각 또한 고정화된 좌표체계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주은우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도시화는 “의미론적으로 구성되는 장소에 결박되어 있던 시간과 공간을 해방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왔던 기존 좌표체계를 뒤흔들어 버렸다”고 주장한다.²⁹⁾

산업화와 도시화의 상징적 기술인 철도는 새로운 시각체계의 등장에 관한 구체적 경험을 제공한다. 철도 차창 밖을 바라보는 눈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다. 달리는 철도가 내는 속도의 구속 아래에

27) Ellul, 『굴욕당한 말』, 54.

28)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373.

29) 주은우, 위의 책, 376.

있는 눈은 자신 앞의 대상들을 스쳐지나가는 방식, 즉 “파노라마 시각”으로 관찰할 뿐이다.

이 파노라마적 시각은 전통적인 원근법 시각과는 다른 것이다. 파노라마적 시각이 전체의 조망을 가능케 하는 종합적 능력으로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스쳐지나가고 사라지는 풍경들의 연속으로서, 고정되지 못한다. 따라서 고정된 시점에서 전체를 포착하는 원근법적 주체의 시각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시각은 인간의 신체를 떠나서 기계에 종속된다.³⁰⁾(강조는 필자)

도시공간의 시각이란 근본적으로, 철도로 상징되는 기술적 장치의 지배를 받는 파노라마 시각의 재현이다. 모더니즘의 도시인들은 “구경거리를 즐기는” 눈으로 “산책자의 시각”을 체험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유럽 도시의 문화를 지배했던 백화점, 아케이드, 영화관(디오라마, 파노라마)이 그와 같은 시각이 구현되는 대표적 장소들이었다고 주은우는 주장하고 있다.³¹⁾

이처럼 도시의 문화는 기술이 뒷받침하는 시각적 이미지 문화로 구축되어 왔고 성장해왔다. 그러한 이미지 양상은 텔레비전이라는 미증유의 기술에 의해 한층 더 가속화되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우리는 사진술, 전파술, 영상재현술 등 현대적 기술의 복합적 구현체인 텔레비전을 통해 이미지가 일상화되고 일반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엘룰이 특별히 텔레비전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엘룰은 텔레비전의 기술적 본질이 시각 이미지의 연속적 이어짐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텔레비전은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다른 하나의 이미지로의 이동으로서, 그 사이에 어떠한 단절도 허용하지 않는다.³²⁾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가령 텔레비전 화면에서 갑자기 시각 이미지가 갑자기 사라져버

30) 주은우, 위의 책, 382-383.

31) 주은우, 위의 책, 397-415.

32) Ellul, 『굴욕당한 말』, 266.

렸을 때 느끼게 될 단절감 혹은 이질감을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연속적 이미지들의 제공자인 텔레비전은 궁극적으로 “이미지의 절대적 승리와 시각화의 절대적 승리”³³⁾를 알리고 있다.

기술에 종속된 이미지의 현실은 이미지의 구체적 발현인 예술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엘뤼는 주장한다. 엘뤼는 예술의 기술적 종속성을 두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먼저, 예술이 기술 환경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다. 엘뤼는 현대 예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더는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 자체를 구성할 반응들을 자극하는 것이다. 강렬한 색채, 독립적인 시퀀스, 현실의 왜곡, 지겨운 음악의 갑작스러운 변화, 언더그라운드 영화의 특성들, 동적인 디자인 등.³⁴⁾

엘뤼는 예술의 이상적 지향점을 상징화에서 찾고 있는데, 기술사회 속에서 예술은 상징화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직 기술 환경을 정당화하는 선전의 도구, 즉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엘뤼는 현대의 많은 대중예술들이 기술적 장치들의 힘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팝 아트(pop art)와 비디오 아트(video art)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주지하는 것처럼, 팝 아트는 1950년대 서구사회에서 대량생산과 소비가 확산되면서 만들어진 대중적 이미지들을 예술적 양식으로 전환해낸 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 비디오테이프 같은 시청각매체를 예술적 표현의 형식과 내용으로 삼는 예술장르를 가리킨다. 엘뤼는 이와 같은 예술이, 합리성이 관철되는 서구의 대중사회를 반영하고 있고, 시청각 미디어의 힘으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기술 종속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러한 예술적 장르들은 이미지의 과도함에 사람들을 노출시킨다. 엘뤼가 사용하는 “모자이크”는 이미지로 넘쳐나는 대중예술을 가리

33) Ellul, 『굴욕당한 말』, 271.

34) Ellul, 하태환 역, 『무의미의 제국』(대장간, 2013), 122.

키는 개념인데, 그 모자이크 이미지는 “자극적인 빛”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며 “사로잡는다.” 사람들은 이미지의 화려함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기술시스템에 대한 우호적 감각을 느끼게 된다. 기술화된 대중 예술들은 사람들을 향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유와 주체성의 의식을 제공한다.³⁵⁾

예술의 기술적 종속성의 두 번째 논점은 형식주의 예술에 대한 관찰에서 도출되고 있다. 앞의 대중예술들이 일반 사람들을 위한 시각적 자극과 자유의 감각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형식주의 예술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에 대한 정당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엘뤼는 기술에 의해 추동되는 현대예술의 형식주의를 논하기 위해 19세기 중반 예술의 경향으로서 “철학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과거의 예술은 “어떤 절대, 근본적인 이념들, 외양 뒤에 숨겨진 진정한 현실, 어떤 구조를” 지향했으나, 기술에 종속된 오늘날의 예술에서 그와 같은 열망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고, 오히려 예술은 추상적 합리성의 원리에 따라 구상되고 있고, 그 속에서 예술은 재현이라는 전통적 기능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³⁶⁾ 한 예로서 엘뤼는 프랑스의 공학자 이면서 예술이론가인 몰(Abraham Moles)의 예술이론을 들고 있다. “결합 예술이론”으로 불리는 그의 이론은 정보이론과 미적 지각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엘뤼에 따르면 몰의 예술이론은 두 개의 전제 위에서 있다. 예술이란 첫째, 전통적 작품들에서와 같이 예술가의 개인적인 창조가 아니고, 둘째, “무한한 창조를 허용해주는 기계들의 현존”에 연관되어 있다. 몰의 예술이론에서 미학은 “예술가들에게 분석의 규칙들, 구조화의 양식들, 프로그램화의 기술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컴퓨터는 그러한 미학의 생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생산자가 된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예술 작품의 보편적 연산방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로서 “모든 것을 요소들로 치환하고 모든 것들 규칙들에

35) Ellul, 『무의미의 제국』, 150-156.

36) Ellul, 위의 책, 160-167.

따라 정돈하는 것을 컴퓨터가 그 무한한 결합 가능성과 함께 허용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술과 기술은 호응한다.³⁷⁾

IV. 말과 자유의 회복을 향하여

엘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반대로 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와 같은 대비적 평가는 ‘상징’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고, 상징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그의 종교적 세계관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엘뤼는 현대기술문명과 그것을 유지해주는 사회적 요소들, 특히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미지를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데, 그러한 사상의 기저에는 기독교적 사유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엘뤼는 “내 연구서에 비친 내 사상의 척도는 성서의 계시다”³⁸⁾라고 고백하고 있다.

성서의 창세기 신화는 엘뤼에게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세계의 모델을 제시해준다. ‘에덴’으로 불리는 원초적인 세계 속에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투여해야 하는 강제로부터 자유롭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행위를 의미하는 ‘필연의 영역’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말이다. 에덴의 세계에서 인간이 향유하는 물질들은 신의 은총이 제공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인간은 자연과 물리적 대결 상태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누린 자유로움과 조화는 신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성서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듯이 인간과 신은 자유로운 언어를 통한 소통 속에 있었는데, 그것은 곧 둘 사이에 어떠한 강제와 구속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³⁹⁾ 하지만 자연, 인간, 신 사이에 성립한 조화와 자유의 세계는

37) Ellul, 위의 책, 170-171.

38) Ellul, 『원함과 행함』, 3.

선악과 사건으로 해체되어 버린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과 맞서 싸워야, 즉 자신의 노동력을 투여해야 하는 필연의 세계로 떨어졌다. 또한, 에덴의 세계에서 신과 직접적인 소통으로 맺어진 인간은 상징적 매개물들을 통해서만 신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⁴⁰⁾

그와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엘룰에게서 종교와 사회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물질적 구속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필연의 영역이지만, 인간은 그 속에서도 원초적 조화로움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에덴의 회복은 신의 주권적 의지에 속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본래적 자유의 세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의 명령이기 때문이다.⁴¹⁾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엘룰이 말하고 있는 자유의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게 된다. 먼저, 이상적 자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조적 질서의 복원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자유는 인간이 관장할 영역이 아니다. 필연의 질서로 떨어진 인간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자유가 제시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엘룰이 “자유는 필연과 결합되어 있다. 자유는 이 필연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데 있다”⁴²⁾, “자유는 필연을 인정함으로써 존재한다. 필연이 없는 곳에서는 더 이상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에덴의 바깥에 존재하는 필연의 세계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39) Ellul, *The Ethics of Freedom*(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114; Ellul, "Technique and the Opening Chapters of Genesis", C. Mitcham & J. Grote, eds., *Theology and Technology: Essays in Christian Analysis and Exegesis*(Boston: The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4), 130-133; 하상복, 「정보기술과 민주주의에 관한 일 고찰: 엘룰의 비판적 기술사상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10집, 2004), 221.

40) 하상복, 「정보기술과 민주주의에 관한 일 고찰」, 222.

41) Ellul, 김희건 역,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두란노서원, 1987), 192-195.

42) Ellul, *The Technological Society*, xxxii; Ellul, "Nature, Technique and Artificiality", *Research in Philosophy & Technology*, vol. 3(JAI Press, 1980), 277-278.

는 이상적 조화와 은총이 부여하는 자유를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이 필연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이상적 자유의 세계를 향한 노력을 기울일 때 자유로운 상태에 있게 된다. 즉, 자유란 “자유와 필연의 올바른 인식 속에서 필연을 극복하고 참다운 자유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존재할 때” 성립한다. 원초적 자유의 세계와 필연적 세계 사이의 넘을 수 없는 간극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발휘될 때 인간의 자유는 존재한다. “자유를 향한 의지와 필연의 변증법적 긴장관계”야말로 자유의 존재조건인 것이다.⁴³⁾

엘뤼이 말하고 있는 자유의 두 가지 존재론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기술사회의 이미지 비판의 궁극적 단초가 된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엘뤼이 말과 이미지를 대립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고, 말에 대해 깊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상징의 본질은 아마도 초월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 상징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존재와 다른 하나의 존재, 하나의 세계와 다른 하나의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점에서 상징은 존재와 존재의 연결, 세계와 세계의 합치를 이루어내는 중간자가 된다.⁴⁴⁾

엘뤼이의 철학적 사유에서 상징은 에덴의 세계에서 축출당한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 속에서 성립한다. 말하자면 상징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필연적 세계를 잇는 매개자가 된다. 필연적 질서에 존재하는 인간은 신을 직접 만날 수 없다. 오직 상징적 매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엘뤼이 말은 말이 바로 그러한 상징성의 심층에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해진 세계에서 인간은 의미와 이해를 퍼 올리며, 환각적이고 정신분열적이며 상상적인 세계라고 불리는 다른 세계에 들어가려고

43) 하상복, 『자크 엘뤼이(Jacques Ellul)의 현대기술-정치비판에 관한 일 연구』, 37-38.

44) 드브레, 『이미지의 삶과 죽음』, 94.

자기 삶의 실제 상황을 뛰어넘는데, [...] ‘말’은 현실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 달리 표현하면 현실을 넘어선 초현실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말’의 역량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는 진리의 영역이라 불릴 수 있다. ‘말’은 진리를 창조하고 진리의 토대가 되며 진리를 생성한다.⁴⁵⁾

엘렐에게서, 이미지와 대비되는 말은 모호하고, 역설적이며, 신비와 연결된다. 말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모호함), 서로 모순된 현상이 공존하도록 하며(역설), 그와 같은 모호함과 역설의 힘으로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와 같은 고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은 상징성을 내재하게 되는 것이고, 필연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상적 자유의 세계에 대한 열망과 갈구를 추동해낸다. 여기서 엘렐이 이야기하는 말은 의미의 모순적 공존과 전환이 불가능한, 확정된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언어가 아니다. 종교인류학자 엘리아데(M. Eliade)는 그와 같은 언어를 “개념 언어”로 치칭하면서 상징은 그와 개념 언어 속에는 살지 않는다고 말한다. 상징을 끌어안는 언어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함께 존재하고, 통합의 가능성 아래 놓이게 하는 언어다.⁴⁶⁾

상징적 언어의 영역은 기술사회에서 이미지가 확장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빼앗긴다. 이미지는 “결코 신비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시각은 합리성의 원리로 이미지를 주조하고 있고, 그 이미지는 모든 것을 명백하게 하고 확정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지는 상징을 향한 어떠한 모호함도 역설도 신비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미지의 그와 같은 특성은 합리성의 구현인 기술적 조건 위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적 장치 위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드브레의 비판이 그 맥락에 잇닿아 있다. 드브레는 “물질적 이미지 -- 사진, 텔레비전, 영화 등의 지시적·유사적 이미지 -- 는 부정문을 모른다. 나무가 아닌 것, 오지 않은 것, 부재는 말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형태로 드러날 수 없다”⁴⁷⁾고 말하고 있다.

45) Ellul, 『굴욕당한 말』, 71.

46) M. 엘리아데, 박규태 옮김, 『성경, 신성, 예술』(서광사, 1991), 34-35.

상징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이미지의 세계는 필연을 극복하고 이상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박탈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종교적으로 이상적 자유와 필연의 긴장에서 태동하는 자유의 가능성 또한 봉쇄해버린다. 역으로 이미지는 인간을 필연의 세계를 향하도록 이끈다. 그 필연의 세계란 본질적으로 기술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이며, 기술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물질적 세계다. 기술적 합리성과 호화로우름을 표출하는 시각이미지들은 기술세계에 대한 찬양을 이끄는 것이며, 그 점에서 이미지의 이데올로기적 선전 기능을 말할 수 있다. 이미지는 초월적 상징성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망각하도록 하고, 오로지 필연으로 채워진 현재적 세계를 욕망하도록 한다.

상징화는 확실히 최후의 문제들, 즉 세상과 삶의 의미, 영원과의 관계, 근원 또는 죽음과의 대면 등과 관련된다. 반면에 이데올로기화는 훨씬 즉각적이고 가까운 문제와 관련된다. 이데올로기화에 의한 상징화의 대체는 수많은 연속적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중의 하나다. 즉 모든 것을 인간의 수준에 맞추고 모든 것을 현재의 그리고 정치적 삶에 집중한다. ‘다른 곳’은 존재하지 않고, 의미도, 저 너머도, 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그의 즉각적인 삶 가운데, 그의 시간적인 차원 가운데, 외적 존재가 아닌 내적 존재 가운데, 사회성 가운데 존재한다.⁴⁸⁾

기술시대 혹은 기술사회의 예술이 비판받고 있는 이유다. 예술과 예술가는 상징적 임무로부터 벗어나 현재적 상황에 대한 미적 관심만을 유도하고 있다. 예술이 제공하는 스펙터클은 기술의 놀랄만한 힘을 시각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예술이 제공하는 즐거움과 유희는 기술시대가 초래하는 무모함과 위협에 대한 심리적 은폐의 과정이다. 사람들은 기술적 잠재력을 끌어안은 예술을 소비하고 감상하면서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찬미하고, 상상력의 해방

47) 드브레, 『이미지의 삶과 죽음』, 501.

48) Ellul, 『무의미의 제국』, 113.

과 표현의 무한한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희일 뿐이다.⁴⁹⁾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초월과 상징을 향한 어떠한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능력과 해방과 자유의 본질은 물질적 필연의 세계를 지나 원초적이고 이상적인 조화의 세계를 향한 ‘넘어섬’의 의지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V. 나가며

사이버 시대의 문화적 변화상을 연구하고 있는 레비(Pierre Levy)는 『사이버 문화 Cyberculture』에서 이미지의 새로운 양상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미지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미지는 스펙터클의 외재성을 일고 몰입 가능성을 얻게 된다. 재현 행위는 어떤 모델의 대화형 시각화로 대체되고 시뮬레이션이 유사성을 대체한다. 그림, 사진, 필름은 어떤 디지털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 세계를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에 뛰어난 작업 집단 또는 놀이 집단을 수용한다.⁵⁰⁾

레비에게서 디지털 이미지는 대단히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산출한다. 이미지는 사람들의 의식이 표층에 고착되는 것을 넘어 심층으로 이동하게 하고, 소통을 위한 매개물이 되며, 공동체 형성의 새로운 토대로 작용한다. 레비의 이러한 사유는 디지털 세계의 긍정적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재현해주고 있다. 이미지는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고 있고, 끊임없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집단적 지성의 힘을 추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다.

49) 엘릴, 『무의미의 제국』, 156-157.

50) 레비, 김동윤·조준형 옮김, 『사이버 문화』(문예출판사, 2000), 209.

하지만 엘웰은 그들의 희망적 관점과 철저히 결별한다. 엘웰은 이미지의 기술적 진보와 그에 대한 효과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변화는 궁극적으로 기술의 논리가 확대되고 심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기술에 대한 종속성 또한 증가한다. 엘웰은 기술의 전일적 지배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적·심리적 조건의 형성체가 이미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미지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에 추동되는 이미지가 사회적 차원에서 개방, 소통,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해도, 그 이미지가 기술의 토대 위에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암울하다.

엘웰은 기술의 원리로 구현된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거부하지 못하면 인간은 언제나 필연의 질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자유를 향한 길이 전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의 해법은 기술화된 이미지를 거부하고 상징으로 둘러싸인 말의 세계로 돌아가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기술과 이미지 비판의 관점에서 엘웰의 사상을 살펴보았다. 엘웰은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대사회를 보지 못했고, 그 점에서 그의 비판적 사유를 디지털 기술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하지만 엘웰이 제시하는 현대 기술과 이미지 비판의 근본적 문제의식은 상징의 가능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디지털 기술은, 비록 엘웰이 직접적으로 비판한 영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비판적 기술철학의 관점에서 충분히 근본적인 비판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기술과 이미지에 대한 엘웰의 비판적 인식은 상징의 문제와 초월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그러한 논리가 기독교라는 특정한 종교적 세계와 사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상징과 초월의 문제는 비단 기독교적 원리에만 바탕을 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엘웰이 기독교적 원리로 설명한 상징과 초월성이 지니는 인간적 가치를 인류학적 지평 속으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문제는 언제나 인간의 근본적 존재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 모색하게 될 그와 같은 작업은 궁극적으로 엘월 사상의 보편적 토대의 가능성을 찾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Ellul, J.(1964), J. Wilkinson, tr., *The Technological Society*, New York: Alfred A. Knopf(프랑스어판 출간연도, 1954).
- Ellul, J.(1970), D. Pardee, tr., *The Meaning of the City*, Michigan: Williams B. Eerdams Publishing Company(프랑스어판 출간연도, 1975).
- Ellul, J.(1975), E. C. Hopkin, tr., *The New Demons*, New York: the Seabury Press(프랑스어판 출간연도, 1975).
- Ellul, J.(1976), G. W. Bromiley, tr., *The Ethics of Freedom*,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프랑스어판 출간연도, 1973).
- Ellul, J.(1980), "Nature, Technique and Artificiality", *Research in Philosophy & Technology*, vol. 3, JAI Press.
- Ellul, J.(1980), J. Neugroschel, tr., *The Technological System*, New York: Continuum. (프랑스어판 출간연도, 1977).
- Ellul, J.(1984), "Technique and the Opening Chapters of Genesis", C. Mitcham & J. Grote, eds., *Theology and Technology: Essays in Christian Analysis and Exegesis*, Boston: The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Ellul, J.(1987), 김희건 역,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 두란노서원(프랑스어판 출간연도, 1966).
- Ellul, J.(1990), *Propagandes*, Paris: Economica(프랑스어판 출간연도, 1962).
- Ellul, J.(1990), 양명수 역, 1990, 『원함과 행함: 그리스도교 윤리 입문』, 전망사(프랑스어판 출간연도, 1964).
- Ellul, J.(2004), 박동열 · 이상민 옮김, 『굴욕당한 말』, 대장간(프랑스어판 출간연도, 1981).
- Ellul, J.(2013), 하태환 역, 『무의미의 제국』, 대장간(프랑스어판 출간연도, 1980).
- 드브레, R.(2011), 정진국 옮김, 『이미지의 삶과 죽음』, 글항아리.
- 레비, P.(2000), 김동윤 · 조준형 옮김, 『사이버 문화』, 문예출판사.
- 맥클루언, M.(2011), 김상호 옮김,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백옥인(1998),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문학과 지성사.
- 손화철(2007), 『토플러&엘릴: 현대 기술의 빛과 그림자』, 김영사.

양명수(1995), 『호모 테크니쿠스』, 한국신학연구소.

엘리아데, M.(1991), 박규태 옮김, 『상징, 신성, 예술』, 서광사.

주은우(2003),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진중권(2014), 『이미지 인문학』, 천년의상상.

하상복(1994), 『자크 엘뤼(Jacques Ellul)의 현대기술·정치비판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하상복(2004), 『정보기술과 민주주의에 관한 일 고찰: 엘뤼의 비판적 기술사상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10집.

Abstract

The technology is developing rapidly. We can see and feel, in its magnificent growth, the spectacles of visual images. What significance does the images of cyber spaces give us? As the optimists insist it, does they make the new way for social openness and horizontality? This study is oriented to answer these questions. For this purpose, by observing the technological thought of J. Ellul, French social thinker, we approach the problem of technology and image. Ellul thinks that image is essentially the ideology legitimizing the technological society and the power paralyzing the human will for the transcendence and symbol.

【Keywords】 Technology, Image, Ellul, Transcendence, Symbol

논문 투고일: 2014. 9. 30

심사 완료일: 2014. 10. 10

게재 확정일: 2014. 10. 10